

여항-시정 가사의 담론 특성

- 잡가집 수록 <과부가>를 중심으로 -

육민수*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과부가> 계열 가사의 이본 현황 및 과부 담론의 개괄적 양상
- III.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의 담론 특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여항-시정 문화권을 산출 기반으로 하는 가사 작품 중 <과부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그 담론 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과부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과부 담론의 보편적 정서라 할 수 있는 사별의 정한을 여항-시정 문화권에서는 이 문화권의 대표적 텍스트 생성 문법인 감상성과 자극성의 메커니즘 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과부가> 계열의 가사 작품(각편으로서)은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15종이 있으며 이 중 13종은 규방문화권의 작품이며 2종은 여항-시정 문화권의 작품이었다. 각편으로는 2종에 불과하지만 이 두 작품이 여항-시정 문화권에서 활발하게 향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항-시정 가사 2종은 <과부가>와 <청춘과부곡>인데 <과부가>는 14종의 이본이 있으며 <청춘과부곡>은 5종의 이본이 있다.

구체적 분석 과정에서는 여항-시정의 담론 특성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과부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이를 주로 규방문화권의 <과부가>류와 대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

*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다. 실존적 성격을 지닌 인격적 서술자의 서술 유무, 사설 양상(부모 양육 대목과 혼인 대목)의 차이, 동일 문화권 혹은 인접 문화권과의 공동담론 활용 등에 대하여 대비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규방문화권의 <과부가>류는, 작자의 실존성과 결합하여 과부로서의 고단한 일상을 일생 동안 살아야 할 처지에서 이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주체로 서기' 위하여, 그리고 同質的 艱苦를 견뎌낸 규방 부녀자의 '共感'을 얻고 치유하기 위하여 창작되고 향유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비하여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는, 서술자의 애상적 탄식 대목의 집중적 서술, <규슈상스곡> 및 <사친가>류와의 공동담론의 활용, 인간 본연의 정감의 直情의 토로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가 잠가집에 수록된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서 작자의 실존성에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는 텍스트이며, 불특정 계층인 도시 대중의 통속적 미감을 자극하기 위하여 산출된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여항-시정 가사, 규방가사, 과부가, 감상성, 자극성, 주체로서 서기, 공감 얻기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의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기본 전제는 성리학적 이념의 상징이다. 조선 사회가 성리학적 이념 체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세계관적 토대 또한 성리학적 이념이었음을 대전제로 삼아 두고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조선전기와는 異質의인 새로운 문학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접근 시각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성리학적 질서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라고 해석하든지 혹은 성리학적 질서가 해체되어 소위 중간층의 세계관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해석하든지, 해석의 기준들은 여전히 성리학적 이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조선의 사회 질서가 성리학을 기준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접근 태도는 옹당 옳은 것이지만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역사·사회·문학 현상을 단일한 기준으로만 파악한다는 것은 그 다채로운 특성을 사장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 시각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선후기의 상업도시화 및 이와 맞물려 있는 문학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전기의 한양이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18세기를 전후해서부터 조선후기의 한양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업 도시로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갔다. 그에 따라 문화도 상업적, 도시적 특성이 중심이 된 여항-시정 문화가 형성, 발전하게 된다. 김학성은 여항-시정 문화권이 조선후기 문화·예술의 지형도에서 중심적 역할로 부상한 점을 지적하여 조선후기 문학의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18, 19세기 서울을 비롯하여 상업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집단인 대중이 향유하는 여항-시정 문화가 형성, 발달하게 되는데 이 여항-시정 문화는 궁정-관각 문화와 향촌-촌락 문화로부터 자양분을 확보하여 이를 대중적인 통속성으로 재창조해 내며 조선후기 문화의 중심부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에는 바로 이 여항-시정 문화권이라는 텍스트 산출 기반을 중심에 두고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 그뿐만 아니라 여항-시정 담론을 담은 일련의 탈 신분적 성향의 가사를 묶어 ‘여항-시정 가사’라고 유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²⁾ 기실 조선후기 잡가나 시조 연구에 있어서는 그 대중적, 통속적 특성을 도시 문화와 연계하여 이해한 연구가 제법 제출

1)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pp.10-24.

2) 김학성, 「서민가사의 담론기반과 미학적 특성」,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서, 2004, pp.188-189.

된 바 있지만³⁾ 가사 장르의 경우에는 작품의 실상이나 전승 규모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 상황이다.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성리학적 질서라는 단일한 기준으로만 작품을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세적 신분 질서의 와해 양상에만 주목하게 되었으며 정작 성리학적, 중세적 질서의 와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여항-시정의 도시 문화의 발아와 성숙에는 눈길을 주지 못하게 되었던 탓으로 이해된다. 중세적 신분 질서에 주목한 경우보다 여항-시정 문화권적 접근으로 텍스트의 실상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 예로는 『초당 문답』 <우부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존 연구 중 <우부가>의 말쑤이, 곱생원, 쌍생원의 행동을 양반, 중인, 서민 등 특정 계급의 행동으로 이해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그러한 신분을 넘어서서 여항-시정의 파락호의 행동으로 이해할 때 <우부가>의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南村 활양인 말쑤이의 투전질과 虛慾으로 장스하기, 곱생원의 家堡樊成 구문 먹기, 쌍생원의 日收돈 月收돈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방향은, 상업도시의 성숙 과정에서 여항-시정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활동한, 물욕에 탐닉하는 인간 군상에 대한 경계라는 시각에서 <우부가>에 접근해야 훨씬 정확하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항-시정 문화권을 산출 기반으로 하는 가사 작품 중 <과부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그 담론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3) 이노형, 『한국 전통 대중가요의 연구』, 울산대 출판부, 1994; 박애경,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천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등의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

4) 강경호, 『서민가사의 실체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2; 권순희, 『옥설화담의 소통 양상과 통속성』, 『어문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5) 김학성은 『잡가의 생성기반과 장르 정체성』(『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p.268)에서 조선후기의 예술사의 흐름을 도시 여항의 발달과

이들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과부 담론의 보편적 정서라 할 수 있는 사별의 정한을 여항-시정 문학권에서는 이 문학권의 대표적 텍스트 생성 문법인 감상성과 자극성의 메커니즘 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부 담론은 규방문화권, 구비설화, 개화기의 계몽담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여항-시정 가사의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규방가사 <과부가>류와의 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과부 담론은 담론의 성격상 규방문화권에 많이 존재하며 동일하게 가사 장르인 규방가사와 여항-시정 가사를 비교했을 때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의 특성이 선명하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과부가> 계열 가사의 이본 현황 및 과부 담론의 개괄적 양상

<과부가> 계열의 가사 작품은 원래 몇몇 종류가 있다. <과부가> 계열 가사 작품의 현황을 먼저 밝히고 이후 여항-시정 문학권의 <과부가>의

문화적 성격의 변화 정도에 따라 ‘여항예술의 시기’(17세기~18세기 중반), ‘시정예술의 시기’(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도시예술의 시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구도에 따른다면 여항-시정 가사 또한 ‘여항예술기 가사’, ‘시정예술기 가사’, ‘도시예술기 가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미적 지향이나 담론화 방식 및 특성이 다르게 파악될 것이다. 이 글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지향점 또한 각 단계별 작품과 이본 양상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미적 특성과 담론 특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세분화 작업의 전제·기초 작업이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여항문화-시정문화-도시문화를 묶어 여항-시정 문화라고 통합 지칭하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포괄적 시각을 통하여 조선후기의 개별 가사 텍스트에 우선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본 현황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과부가> (동국대 소장본: 우민가 합철) / 이본: <과부가> (고려대 소장본: 『언문잡용록』 수록)
2. <과부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정슈경전 합철)
3. <귀천기형 다전되 슈작>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40번)
4. <과부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45번)⁶⁾
5. <청송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48번)
6. <이부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49번)
7. <소회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50번)
8. <철철지 회심가라>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51번)
9. <상사몽>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52번)
10. <여자 탄식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본: 58번)
11. <과부청산가> (『규방가사』 I 수록본: 4-3번)
12. <상사금실가>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13. <슈절자탄가>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14. <과부가> (『정정증보 신구잡가』(1914) 수록본) / 이본: 『정정증보 신구잡가』의 13종
15. <청춘과부곡> (『신찬 고금잡가 부가사』(1916) 수록본) / 이본: 『신찬

6) 권태을, 『규방가사를 통해 본 사별인식고-숙명론에 선 과부가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에서는 <과부가> 계열 9편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는데,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중 45. <과부가>, 46. <과부가>, 47. <청춘과부가>, 48. <청송가>, 49. <이부가>, 50. <소회가>, 51. <철철지 회심가라>, 52. <상사몽>, 58. <여자탄식가>의 아홉 작품이 그것이다. 가사 <과부가>의 범주를 단순히 작자(혹은 서술자)가 과부라는 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부가> 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과부로서 겪었던 간고한 삶이 형상화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대개 ‘부모의 양육-혼인- 남편의 죽음-과부로서의 고독한 삶과 그에 대한 탄식’ 정도의 구성이 일반적인 듯하다. 작품에 따라 이러한 양상의 들고남이 있는데 보다 세심한 개념 설정 문제는 작품이 좀 더 축적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금잡가 부가사』의 4종

1~13번까지의 <과부가>는 대체로 규방문화권에서 향유된 작품들로 생각된다. 1의 경우 동국대 소장본과 고려대 소장본이 있는데 동국대 소장본은 <우민전>과 합철된 본이다. 고려대 소장본은 『언문잡용록』 안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수록 양상을 살펴보면 1번 계열이 주로 규방문화권에서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문잡용록’이라는 표제 아래에 ‘여즈 니척가스’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함께 수록된 글들을 보면, “지문-이회가-형주전 상서-상중-샤형시전 상장-화조가-답상장-여즈스친가-기미지원슈스일-식부모답서-시집간 부여의 니척가스-어화 반가워라-지문-며나리 답서-상중-여즈권학가-지친가백남문-화전가-과부가-환부자탄가” 등 주로 규방문화권에서 유통된 국문 문학 작품이나 생활 글들을 위주로 잡다한 유형의 텍스트를 모아 놓은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표지에는 ‘단기 스천이백 팔십삼년 이월십이일’로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1950년에 필사되었지만 각 작품 말미에 필사 연대로 추정되는 연기를 적어 놓은 것들이 몇몇 있어 주목을 요한다. ‘상중’은 ‘정희(1947) 삼월 초칠일’, ‘답상장’은 ‘병술(1946) 이월 망일’, ‘식부모답서’는 ‘무인(1938) 납월 초칠일/갑신(1944) 구월 십륙일’, ‘시집간 부여의 니척가스’는 ‘갑신(1944) 구월 순팔일’, ‘화전가’는 ‘임신(1932) 삼월’, ‘과부가’는 ‘을미년(1895/1955) 이월 십오일 계유생(1933)’이라는 간기가 기록되어 있다.⁷⁾ 1번 계열의 <과부가>는 20세기 초반의 규방문화권에서 <우민전>과 같은 소설 작품이나 祭文, 上狀과 같은 규방의 생활 글과 함께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번 계열의 <과부가> 또한 규방문화권에서 향유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설 <정슈경전>과 합철되어 있으며 서

7) ‘며나리답서’에도 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읽을 수 없어서 생략한다.

올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11번까지의 <과부가> 작품들도 권영철 편, 『규방가사』(신변탄식류)나 『규방가사』 I 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방문화권에서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13번은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두 작품과 <가혼가>, 이렇게 세 작품이 함께 합철되어 있다. <슈절자탄가>는 규방문화권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개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든지 황진이 시조 작품이 수용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독특한 점이 많은 텍스트이다.⁸⁾ 지금까지의 이본 검토를 통해 살핀 것처럼, ‘과부’라는 소재의 특성상 <과부가> 계열은 규방문화권에서 많이 산출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시집은 지 1~2년 만에(혹은 그 이후라 하더라도)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또는 유복자를 키우고 시부모를 봉양하며 간고한 靑孀의 삶을 헤쳐 나가야 했던 여인의 응어리진 恨이 자탄의 형식으로 분출되고 토로된⁹⁾ <과부가>는 결국 과부로서의 고단한 일상을 일생 동안 살아야 할 처지에서 이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주체로 서기’ 위하여 서술자가 산출해 낼 수밖에 없는 혼돈을 내포한 언어물이었다.¹⁰⁾ 이들이 감내하였고 또 앞

8) “공부즈 더성인도 삼디을 출처로디/출처로 말할진디 개가는 의당스라/도통에 허물업다 천고에 일너있고/경주즈ᄇ 성인도 성질여 개가가고/주공도 성인이스다 예법을 말가실제/첫정승 비극점은 그어먼이 드러보소/세번개가 가 난 조식 허정승 신경승에/정승서홀 나후신이 만일개가 안가던들/조목동휘 일여조라 정승서히 어디날이”, “청손리 벽계슈야 슈이감을 자랑마라/일도 창히하면 다시오기 얼어위라/명월이 만공손흔들 뉘로호여 슈여갈고”

9) 최상은은 『규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새국어교육』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p.363.)에서 <과부가>류가 포함된 자탄가류에 대하여 “자탄가는…(중략)… 가슴 속에 묻어 두었던 여자로서의 한을 스스로 풀어낸 작품군이다. 따라서 자탄가는 독자를 전제하지 않고 안으로 쌓아 놓은 정서를 표현해 보고 싶은 욕구를 분출한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

10) 신경숙은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국제어문』25, 국제어문학회, 2002, pp.101-102.)에서 “탄식가의 혼돈은 바로 고난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으로 감내해야 할 고단한 삶은 <과부가>로 형상화됨으로써, 역시 고된 시집살이를 거치며 同質的 艱苦를 견뎌낸 규방 부녀자의 ‘共感’¹¹⁾을 얻고 치유되면서 더욱 공고하게 ‘주체로 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당대의 시대 상황 속에서 사대부 부녀자가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점은 다음의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의 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한 논의에서는, 양인과 달리 양반층의 경우 18세기 이후 재혼을 하지 않고 과부인 채로 사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¹²⁾

과부의 신분별 친가 : 시가 거주 양상

(단위: 명)

식년	양반	양인	천인
1678	4 : 3	5 : 6	6 : 0
1717	2 : 19	21 : 20	16 : 4
1759	3 : 26	11 : 10	3 : 1
1789	0 : 21	4 : 5	4 : 1

위 표를 보면 과부가 친가에서 거주하는지 시가에서 거주하는지의 상황이 신분별로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양반의 경우 1678년에는 시가 거주와 친가 거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1717년 이후에는 대부분 시가

불행으로부터 이끌어낸 언어이다...(중략)...불행한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일상과 존재를 해석해낼 언어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 11) ‘공감 얻기’는 “여와 세상 사람드라 이니 말씀 드러보소”(〈이부가〉), “어화세상 사람들아 과부상사 들어주소”(〈상사몽〉)와 같은 청자 지향의 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2)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고문서연구』18권 제1호, 한국고문서학회, 2000, p.19. 아래 표도 이 글(p.24)에서 인용함.

에서 거주하는 양상을 보인다. 친가에서 거주하는 것이 곧바로 개가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가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시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개가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봉쇄된다는 점에서 위 표는 18세기 이후 양반층 과부의 대부분이 수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再嫁女의 경우 그 자손이 과거를 볼 수 없게 한 법(再嫁女子孫禁錮法) 규정과 종법 제도에 의한 부계 질서의 확립 때문에 나타난 양상으로 파악된다. 한편 양인의 경우에는 시가 거주와 친가 거주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친인의 경우에는 친가 거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인다. 이 두 계층의 경우 재가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건의 영향, 즉 이들 신분의 부녀자들이 혼자서는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표를 인간 본연의 정감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대부층 과부의 경우에는 18세기 이후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근원적 天機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유야 어찌 됐건 양인과 천민 부녀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결과상 남녀 간의 사랑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³⁾

13) 규방가사를 통하여 사대부 의식과 연계된 규방문화권의 과부 담론에 대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구비설화를 통해서도 양인·천인 등 일반 민중들의 과부 담론에 대한 입장을 포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규방문화권의 가사 작품들과는 다르게 수절 일변도의 종결이 아니라 개가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꽤 많이 보이고 있다. 『청구야담』의 <隣孀女幸相囑武弁>의 경우, 정승 아버지가 딸을 개가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딸이 죽었다고 하고는 장례를 치르고 딸을 개가시키는 내용인데 이렇게 사대부가 사회 규범을 일탈하여 인간 본연의 정감을 옹호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은 이 과부 담론의 산출 기반이 민중층의 세계관이 녹아든 설화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설화에는 이 밖에도 과부가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가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여항 시정 가사 <과부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한다. 여항-시정 문화권 <과부가> 계열의 이본은 다음과 같다.

14. <과부가> 계열(총 14종): 『정정증보 신구잡가』(1914) <과부가> / 『고금잡가편』(1915) <과부가> / 『무쌍 신구잡가』 <과부가> / 『특별대증보 신구잡가』 <寡婦歌> / 『시행증보 해동잡가』 <과부가> / 『신구 현행잡가』 <과부가> / 『신정 증보 신구잡가』 <과부가> / 신명균 편 『가사집』 <寡婦歌> / 고대본 『악부』 <寡婦歌>① / 고대본 『악부』 <寡婦歌>② / 『교주가곡집』 <寡婦歌> / 『歌集』¹ <寡婦歌> / 『규방가사』 <과부가>(46번) / 동국대 『석별가』 <과부가>

15. <청춘과부곡> 계열(총 5종): 『신찬 고금잡가 부가사』 <청춘과부곡> / 고대본 『악부』 <청춘과부전> / 『규방가사』 <청춘과부가>(47번) / 동국대 『석별가』 <청춘과부가> / 영남대 <과부가>

여항-시정 문화권 <과부가>의 유형은 <과부가> 계열, <청춘과부곡> 계열 이렇게 두 유형이 있다. 이 중 활발하게 향유되며 여항-시정 가사의 주요 특질을 지니고 있는 전자의 <과부가> 계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 <과부가>의 이본은 모두 14종이다. 이 중 잡가집에 수록된 것이 7종으로 주류를 차지한다. 잡가집뿐만 아니라 신명균 편 『가사집』이나 고대본 『악부』, 『교주가곡집』, 『가집』¹ 등도 당대의 유행하던 유행 텍스트를 수록해 놓은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 계열의 <과부가>는 여항-시

전승되고 있는데, 규방문화권의 <과부가>류가 규방여성의 ‘주체로서 서기’, ‘공감 얻기’를 위해 향유되었다면 설화문화권의 과부 담론은 민중층의 순진하면서도 본연적인 ‘욕망 실현’을 위해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비설화의 과부 담론에 대해서는 김기형,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 『한국민속학』26집, 한국민속학회, 1994, pp.28-43 참조.

정 문화권을 중심으로 향유된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 텍스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한탄
- (나) 부모의 양육
- (다) 혼인
- (라) 남편의 죽음
- (마) 고독한 청상의 삶에 대한 탄식
- (바) 동리할미의 개가 권유
- (사) 화자의 솔직한 감정

여항-시정 문화권의 <과부가>도 규방문화권의 <과부가> 계열과 마찬가지로 과부의 통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자연의 이치상 부부가 함께해야 하거늘 출가한 지 보름 만에 신랑이 죽는 바람에 청상이 되어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부인의 절절한 정감을 짙진하게 펼쳐내고 있다. 혼인한 날 衾裏에서 니는, 백년 동고동락의 다짐의 목소리가 채 귀에서 떠나기도 전에 화자는 자신 앞에 닥친 모진 현실을 감내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함께할 이 없는 고독의 시간을 월령체로 풀어내기도 하며, 자연의 순환 속에 임의 순환을 고대해 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부질없는 것임을 때로는 귀뚜라미의 슬픈 울음 속에, 때로는 다정한 벚과 함께하는 황조의 지저귀음 속에, 또 때로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지켜가는 친구들과의 대비 속에 절감하게 된다. 끝내는 削髮爲僧까지도 생각하지만 시가와 친가의 사회적 위상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한 일이 된다. 말벗이나 하자고 부른 동리 할미가 개가를 권유하자

14) 『규방가사』 <과부가>(46번), 동국대 『석별가』 <과부가>는 규방문화권에서 향유된 이본인데, 원래 여항-시정 문화권에서 향유되던 것이 규방문화권으로 향유 공간을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화자는 ‘암만히도 못춌궂다’라고 솔직한 감정을 토로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부가>의 산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이본은 『정정증보 신구잡가』(1914)에 수록된 <과부가>인데, 20세기를 넘어선 이 시기 과부의 수절에 대한 담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 듯하다. 전통적 경향은 여전히 과부의 수절에 가치를 부여하며 改嫁女에 대하여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 지금까지도 유효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가부장제에 따른 여성의 억압 기제라고 이해되고 있다. 또 다른 방향은 젊은 나이에 청상이 된 경우 남은 생을 수절해야 하는 문화적 분위기는 여성에 대한 지나친 통제이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대의 신문 및 신소설과 같은 계몽 담론에서 후자의 입장들을 발견할 수 있다.¹⁵⁾

대더 남녀가 작비힘은 인도의 비릇힘이니 가히 억지로 구하며 강박히 형치 못홀 것이오 호리비와 과부가 서로 작비힘은 저의 마암더로 할 것이라 (『제국신문』, 1907. 6. 21.)

(과부) 당죽로 말하야도 형세 보노라고 평성을 설게 지닐 썩닥이 업스니 형세에 구이치 말고 텃성더로 기가를 흐든지 슈절을 흐든지 님의더로 흐시오 (『대한일보』, 1904. 7. 10.)

자식을 내가 낳았다 뿐이지 남녀를 물론하고 막중한 국민의 한 분자된 이 상에 어찌 죽기를 바라며, 또 지금 이같이 개명하여 오는 이십세기에 그

15) 전미경, 『개화기 과부개가 담론 분석』(『한국가정관리학회지』19권 3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1, p.18.)에 따르면 개화기에 타파되어야 할 대표적인 가족제도로 주목받았던 것이 조혼, 축첩제, 과부 개가 금지였으며 당대 지식인들은 ‘民智’의 계몽을 통해 이를 타파하고자 하였고 신문과 신소설 등에서 이를 표출했다고 한다. 인용문은 이 논문을 참조함.

정신을 못 차리고 양반이니 상것이니 잡꼬대를 한단 말인가? …(중략)… 公益으로 말하면 청상과부를 억지로 수절케 하여 국가생산에 큰 손해가 되게 한단 말인가? (<홍도화>)

이상의 인용문은 신문 및 신소설에서 改嫁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을 뽑은 것이다. 과부 개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갑오경장의 개혁안 등에서 선구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군이 제시했던 폐정개혁안에는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해의 갑오개혁 1차 개혁안에도 과부의 개가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부 개가 허용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은 지식인 계층의 선도 아래 확장되었는데, 사대부家 과부의 개가 사례가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신문에 소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한다.¹⁶⁾ 이렇듯 20세기를 전후로 하여 과부 개가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여항-시정 문화권의 <과부가>가 산출된 시기도 과부 개가 허용에 대한 계몽적 접근이 이루어지던 시기와 같은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론 공간의 동시대성을 바탕으로 <과부가>에도 개가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동리할미의 발화 안에 반영되어 있다. 긴긴 가을밤을 보내기 위해 말벗으로 부른 동리할미가 한 말은, “그 흘미 흥령호여 지가 가라 호는 말이 청춘쇼년 빅발 되면 다시 점지 못호리라 아모기네 맛솔으기 지가 가서 편안호지”라는, 개가 권유였다. 사회 지도층이 자신들 집안의 개가 소식을 신문에 공개적으로 신고서는 과부 개가를 권유하는 점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성

16) 위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로, 『대한매일신보』 1908. 7. 8일자, 「제도국 총제 김윤식은 寡居하는 외손녀와 喪配한 侍從 이교영씨와의 혼례」 등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문이나 신소설의 계몽 담론과 여항-시정 문화권의 <과부가>는 담론의 산출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향은 다르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의 담론 특성

규방문화권의 담당층은 어려서부터 『열녀전』, 『내훈서』 등 婦德에 대한 교육이 철저했고 시집이든 친정이든 가문의 위상 지키기가 당대 사회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一夫從事의 태도는 당연히 해 보인다. 숙명론적 입장에서 자기 위로를 모색한 작품에서나, 반숙명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작품에서나¹⁷⁾ 결말은 대체로 정절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때로는 “열려전 너측편에 아름다운 열부형실 역역히 싱각히도 쓴 밋기난 어렵구나”(〈청송가〉)에서처럼 고독이라는 인간 본연의 정감과 정절이라는 공고화된 이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토로되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 과부로서 인간 본연의 정감을 통제하며 살아야 하는 삶 속에서 <과부가>는 ‘주체로서 서기’와 ‘공감 얻기’를 통해 그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⁸⁾

한편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에 대한 접근은 이 텍스트가 여항-시정 문화권이라는 담론 공간에서 산출되었다는 점을 주요한 전제로 삼아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과부가>는 여항-시정 문화권의 텍스트 생성 문법에 따

17) 권태을, 앞의 논문, p.223.

18) <과부가>의 창작과 향유가 문화적 교양 현시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하도록 한다.

라 산출된 작품이며, 여항-시정 문화권의 독해 방식에 따라 <과부가>를 이해하고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과부 담론이지만 여항-시정 문화권, 규방문화권, 설화문화권 등 산출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의 성격, 지향, 담론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동일하게 가사 장르인 규방가사와 구체적으로 대비하면서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규방가사 <과부가>(<청송가>, <이부가>)나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정정증보 신구잡가』)나 모두 ‘부모의 양육’과 ‘혼인’ 서술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 대목>

하히은덕 우리부모 신채발부 혈기바다 / 십삭기흔 채운후에 이너몸이 성기
 신니 / 남자이나 여자이나 부모자정 다름인가 / 칠월금식 모욕지기 삼신전에
 비난말리 / 왕고적송 명을주고 석순왕에 복을주고 / 만석군에 정기밧고 이목
 에난 총명이라 / 빅연히로 다자다손 수복강영 점지호소 / 이려타시 축원후에
 장중에 귀화삼아 / 어난듯 두시살리 말비우고 거렴홀지 / 무렵우에 안치놋고
 히룡으로 흐신말삼 / 세상업난 너흐나를 정경부인 삼으리라 / 은사금사 길너
 너야 어난곳디 출가할고 / 희동부자 퇴기집에 예안으로 보너볼가 / 삼흔갑죽
 연안이시 오봉집에 출가할가 / …(중략)… / 자모시에 훈기바다 질삼방직 비
 와닐지 / 춘일지양 봄흔철른 명주질삼 추절리라 / 오월명주 여름철른 의차에
 직 갈포질삼 / 구월추에 추절들면 이주공양 무명질삼 / …(중략)… / 출등자의
 우리어마 위로히서 흐신말삼 / 여공에 밋인일른 모도다 비와두면 유조흔니
 / 기억이언 언문글른 여가바서 익혀두라 <청송가>

우리부모 날길너서 무슴영화 보려호고 / 김흐나 김흔방에 천금궤치 녀허두
 고 / 외인거리 전폐흐니 친척도 회소흐다 / 세월이 여루흐여 십오세 잠간이라
 <과부가>

<혼인 대목>

가문몰어 정혼하고 실낭취해 허혼하고 / 강서오고 의양온후 전안일자 가릴
 적의 / 택일관 불너다가 일월도수 칙역노코 / 다남장수 하올날과 부귀영화
 조흔시를 / 주당살 고과살을 알뜰알뜰 골라내여 / 연분이라 하올적에 원근친
 척 모였도다 / 병풍님의 들인소문 빅연행차 드러온다 / 구름갓탄 장록교난
 장부실낭 타여시며 / 금안준마 조흔말은 상직손임 타싯도다 / 남대바다 드러
 노코 아홉가닥 머리갈나 / 반월소로 췌겨니여 금봉차를 질너노코 / 성도에
 조흔분과 월수에 췌근연지 / 차차로 니여다가 가진단장 분주하다 / 화관을
 숙이쓰고 삼지여 손에걸고 / 주인출령 전난후에 교비석에 니달나서 / 서동부
 서 마조서서 교비항비 형예한이 / 옛법췌차 조컨마는 조롱듯기 붓그렵다 /
 화촉동방 저별당에 만복지원 김은정은 / 태산갓치 꺾어신이 뉘라서 말일손야
 / 빅연동거 그기약이 십상에 무궁하다 / 옛법이 중하거던 삼종지리 곤칠손가
 <이부가>

빅년가약 덩홀적에 오며가며 미파로다 / 레장온지 보름만에 발서신랑 온단
 말가 / 화촉이 다진후에 금리에 동침하니 / 견권지정이 비홀디 전혀업다 /
 금리에서 밍세홀지 빅년사즈 굿은언약 / 성즉동췌호고 스즉동혈이라

<과부가>

규방가사와 여항-시정 가사 두 계열의 부모 양육과 혼인 서술 대목을 인용하였다. <청송가>와 <이부가>는 규방가사인데 부모 양육과 혼인 대목 모두 펴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부모 양육 대목에서는 삼신께 아이의 명복을 기원하는 정성어린 모습이나 출가할 곳을 고민하는 대목, 女功 凡節을 갖추어 교육하는 세심함이 비교적 섬세하게 묘사됨으로써 부모의 따뜻한 정이 잘 전달되고 있다. 또한 혼인 대목에서도 정혼, 허혼, 택일, 혼인 당일의 과정이 모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부의 단장 모습까지 하나하나 형상화함으로써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는 이 대목이 매우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 부모 날 길너서 무슨 영화 보려호고” 대목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 의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혼인 대목은 서술 분량도 적을 뿐더러 그 과정도 일사천리로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어 신랑의 등장에 이어 곧바로 衾裏 안에서의 동침 장면으로 넘어간다. 여항-시정 가사가 이러한 이유는 전체 사설 분량이 규방가사에 비하여 적은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서술의 초점이 주로 과부 서술자의 애상적 탄식 대목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가 (가)~(사)의 일곱 단락으로 구성된다고 한 바 있는데 서술의 대부분은 (마) ‘고독한 청상의 삶에 대한 탄식’에 몰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상성에 대한 집중은 여항-시정 문화권의 통속적 대중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학성에 따르면 여항-시정 문화는 시정인들의 기호와 취향에 부응하는 지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통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텍스트화가 이루어지며, 이 문화의 대표적인 잡가의 경우 여항-시정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흥행 예술이므로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도식성과 말초적, 즉각적, 직접적인 자극성을 지니게 되며, ‘낮익임을 자극하기’라는 작품 형성 원리에 따라 관능성, 감상성 등의 방향으로 텍스트가 실현된다고 한다.¹⁹⁾ 과부 담론 또한 이러한 감상성, 자극성을 주기에 적합한 소재였기 때문에 <과부가>로 텍스트화 된 것이며 다른 대중적 가사들과 함께 잡가집 안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일단 청춘 남녀의 사랑, 애정, 결연은 대중적이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소재이다. <과부가>의 많은 이본이 잡가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잡가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는 남녀 간의 애정, 이별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다. <陳情賦>, <靑樓怨別曲>, <閨秀相思曲>, <相思

19) 김학성, 『잡가의 생성기반과 장르 정체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pp.256-275.

回答歌>, <相思別曲>, <斷腸詞>, <相思陳情夢歌>와 같은 작품은 굳이 작품을 들춰보지 않고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도시 대중의 통속적 정감을 유인할 수 있는 소재 위주로 작품이 수록된 것이다. 겨우 열다섯에 맞이한 청상의 삶,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것은 눈물뿐이고 지는 것은 한숨뿐인 삶, 실낱같은 목숨을 연명하며 썩은 간장으로 살아가는 애처로운 화자의 모습 속에 도시 대중들의 눈물샘은 터졌을 텐데 그러한催淚性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감상성의 소재였던 것이다.

여항-시정 문화권 <과부가>의 정점은 뭐니 뭐니 해도 “암만히도 못춤궂다”에 있다. 서술자는 동리할미의 개가에 대한 유혹에 지금까지의 傷心이 붉은 같이 녹으며 “암만히도 못춤궂다”라고 자신의 숨겨두었던 인간 본연의 정감을 直情的으로 토로하며 끝맺고 있다.²⁰⁾ 규방문화권의 <과부가>류가 개가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 자신의 고단한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새 삶을 살 것을 권유하는 정도인데 비하여 여항-시정 문화권의 <과부가>는 直情的이며 자극적이다. “암만히도 못춤궂다”의 두 마디를 통해 참고 참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청춘 여성의 사랑에 대한 갈구, 남녀 결연에 의해서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원초적 정감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전개되어 오던 감상성 서술들의 集積과 연계되어 <과부가>의 텍스트 문법이 도시 대중의 미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 ‘자극하기’에 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항-시정 문화권의 텍스트는 여항-시정 문화권이나 인접한 문화권의 공동 담론을 활용하여 텍스트화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부가>에서

20) “암만히도 못춤궂다” 뒤에 “나무아미타불 빅년벗님 점지호야 주옵소서 비느니라”로 끝맺는 이본도 있다. 『무쌍 친구잡가』, 『시행증보 해동잡가』, 『교주가곡집』, 『가집(1)』, 『규방가사』(신변탄식류-46번) 수록본이 그것이다.

도 이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과부가>의 ‘동리 할머니’와 유사한 등장인물을 <규슈상소곡>(『정정증보 신구잡가』)에서 만날 수 있다. 이 텍스트는 남성 화자가 이미 다른 이와 결연을 맺은 여성에게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만나주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다른 남자와 여성의 혼인을 맺어준 할머니를 원망하며, “엇더흔 할머니이 두세번 돈니더니 그 덧 어너틈에 청혼편지 왓단말가 신랑은지 보름만에 웬혼놈을 짜라가네… (중략)…원슈로다 원슈로다 할머니이 원슈로다”라고 원망에 찬 욕설을 내뱉고 있는데, 서술자의 의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부가>의 동리 할머니와 동일 선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라 하겠으며 가사에서 이와 같이 유사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두 작품의 텍스트 형성 문법이 동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과부가>의 서술자는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절대적 고독을, 월령체의 표현 방식을 빌려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비록 완벽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친가>류나 월령체 노래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다. <사친가>의 사설은 텍스트 전체가 월령체 방식으로 전개되며 주제가 思親으로 수렴되어 있어서 다른 점도 많지만 <과부가>와 발상의 유사성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여항-시정 문화권에서 공동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산출하는 형성 문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밖에도 相思의 정감을 표현하는 유사한 많은 표현들을 여타의 여항-시정 가사 작품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이든 규방가사 <과부가>이든 <과부가>는 서술자가 모두 자기 자신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술회하며 탄식하는 전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감상성의 정도는 농후하다. 대개 ‘남편과의 사별’ 이후 ‘고독한 삶’, ‘남편에 대한 그리움’ 대목에서 감상성이 짙진하게 내포되기 마련인데, 하지만 그 감상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에는

텍스트가 산출된 담론 공간에 따라 규방문화권의 <과부가>류에 대한 독법과 여항-시정 문화권에서의 독법이 달라야 한다. 가사의 진술 양식과 관련 지어 이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한다.

주지하듯 가사는 실존적 성격을 지닌 인격적 서술자에 의해 발화되는 것이 양식적 특성이다.²¹⁾ 규방문화권 <과부가>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에 의해 진술되고 있다. 향유와 전승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존적 서술자의 정체(예를 들면 어떤 가문의 어떤 인물)까지 분명하게 밝히기는 힘들지만 분명 진지성에 바탕을 둔 실존적 인격의 목소리로 <과부가>를 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대목이다.

나도 죽어 다시 가서 구천 타일 다시 만나 / 이성에 못산 혼을 이별 말고
사라불가 / 이 글 전편 자자귀을 눈물 석겨 지어너밋 / 오자 낙서 만사오니
그디도록 누리보소 <청송가>

가삼의 피가 미치서 눈물 모와 먹가라 칙얼 모왔습니다 / 아무라도 보시거
든 송을 보시지 마라시고 자사이 보옵소서 / …(중략)… / 가련하다 여자유흥
가련하다 / 할 말은 티산도 부족이고 황하히도 부족이고 / 수탄 전지를 모와도
다 타지마는 / 말도 안 디고 글시도 부족해서 이만하기로 하옵난이다 / 송을
보지 마옵소서 <철철지회심가라>

위 인용문은 규방가사 <과부가>류 작품 중 <청송가>, <철철지회심가라>의 필사기 부분이다. “이 글 전편 자자귀을 눈물 석겨 지어너밋”, “가삼의 피가 미치서 눈물 모와 먹가라 칙얼 모왔습니다”, “말도 안 디고 글시도 부족해서” 등의 표현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이 필사자 본인의 직접 경험임

21) 성무경, 『가사의 존재양식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pp.139-140.

을 고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들은 실존적 성격을 지닌 인격적 서술자에 의한 발화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위 작품의 서술자들은 자신들의 실존적 발화를 통해 내면의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바의 ‘공감 얻기’와 ‘주체로서 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주목할 것은 이 작품들이 문화적 교양 담론의 연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과부로서의 삶에 대한 탄식과는 또 다른 층위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 언표들은 공감 얻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인데 주로 자신의 문자 행위에 대한 겸양과 관련된 것들이다. “오자 낙서 만사오니 그더도록 누리보소”, “아무라도 보시거든 숭을 보시지 마라시고 자사이 보옵소서”, “말도 안 디고 글시도 부족해서 이만하기로 하옵난이다 숭을 보지 마옵소서”와 같은 표현들이 그것들인데 이와 같은 언표들은, <과부가>류의 산출 목적이 서술자 본인의 체험적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교양 행위의 일환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²²⁾ <과부가>류는 과부의 고단한 삶의 표현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후기 규방 여성들이 공감하며 서술자의 회한과 고독의 토로를 따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읽어갔을 내용이었을 텐데도, 서술자는 작품의 말미에 ‘오자 낙서’에 대한 걱정과 ‘말도 안 디고 글시도 부족해서’ 염려가 된다는 ‘겸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 유통의 컨텍스트 정보를 통해 <과부

22) 백순철, 「연작가사 <만언사>의 이본 양상과 현실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제12집, 우리문화회, 1999, pp.188-189.)에서도 텍스트의 내용과는 별개로 쓰인 필사기의 의미에 주목한 바 있다. “眼昏 極甚 書役極難 眩氣 더욱 艱辛 奸臣 썼으니 아가년 크거든 잘 두고 보아라 할미 글씨 담지 말고 둘째 외숙모의 언문을 본받아 부디부디 잘하여라”, “훗사람이 보오시고 꾸짖지 마오소서” 등의 필사기를 통해 가사가 한글 필사 교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흥미의 제공과 교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규방가사의 교양담론으로서의 향유에 대해서는 줄지, 『조선 후기 가사 문학의 담론 양상』, 보고사, 2009, pp.188-192 참조.

가>류와 같은 텍스트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능력이 하나의 문학적 교양을 顯示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규방가사 도입부의 다음과 같은 사실도 동일한 맥락에서 구성된 것이라 하겠다.

태극이 비판후에 음양이 논야신니 / 천심만민 호실적에 흑남흑녀 되야군나
/ 시획팔괘 복희시난 가취법을 마련호고 / 주공이 제례홀지 삼강오륜 발키신
니 / 부부유별 부위처강 강륜중에 참려호고 / 만고디성 문선왕이 계사전을
지어실제 / 텃고지비 건곤패난 역디성현 지은례절 가륙고도 아름답다

<청송가>

어와세상 사람드라 이너말삼 드러보소 / 천지간 만물중에 귀할손 사람이라
/ 삼강으로 벗을삼고 오륜으로 금을매자 / 상하로 명분짓고 남여로 내외갈나
/ 인의예지 마음삼고 효자충신 뿐을바다 / 부자군신 친이이후 부부유별 조홀
시고

<이부가>

인용문은 <청송가>와 <이부가>의 도입부 사설이다. 夫婦 話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부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유가적 개념어를 사용함으로써 발화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태극, 음양, 복희씨, 주공, 삼강오륜, 문선왕, 인의예지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자신의 발화가 사회에서 공인된 유가적 가치에 토대를 둔 것이라는 점을 내포함으로써 작자의 교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규방문화권에서 <과부가> 계열이 산출된 주요한 목적에는, 자기 체험에 대한 토로를 통해 공감 얻기와 주체로 서기라는 목적 말고도 문학적 교양 정도의 현시라는 또 하나의 목적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여항-시정 문화권의 <과부가>는 이와 다른 담론 공간에서 산출되

있기 때문에 접근의 시각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여항-시정 가사 서술자의 경우, 여항-시정 문화권의 특성상 실존적 성격이 담보되지 못하게 된다. 여항-시정 문화권의 텍스트 형성 문법은 기존 문화권의 소재들을 활용하여 작품화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의 고찰에서도 <과부가>가 <규수상사곡>, <사친가> 등 동일 문화권의 시상, 표현 특성 등에서 유사한 양상이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과부가> 또한 공동 담론을 이용하여 텍스트가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과부가>가 실존적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설령 <과부가>의 개인 창작자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텍스트에서는 그 개인 창작자의 실존적 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는 잡가집에 수록된 하나의 문화 상품이기에 때문에 향유되는 자체가 중요할 뿐 작품과 작자가 반드시 밀착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항-시정 문화권에서 유통된 『장편가집』의 <사인곡>과 <思美人曲(사미인곡)>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려준다. 일단 두 작품 모두 작가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아 작자와 작품이 밀착되어 전승되지 않고 있는 점은 동일한데 이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사인곡>이 정철의 <사미인곡>이며 <思美人曲(사미인곡)>은 작자 미상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정철의 <사미인곡>이 이미 전승되어 성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사인곡>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고 오히려 작자 미상의 작품이 <사미인곡>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던 유통의 상황은, 작자와 작품이 밀착되어 전승될 필요 없이 향유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었던 여항-시정 문화권의 텍스트 향유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잡가집에 수록된 <사미인곡>은 모두 정철 작품 아닌, 『장편가집』과 同 계열의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²³⁾ 이렇듯

23) 『증보 신구잡가』 <스미인곡>, 『무쌍 신구잡가』 <사미인곡>, 『신찬 고금잡가』 <스미인곡>, 『특별대증보 신구잡가』 <사미인곡>, 『증보신구 시행잡가』 <스미인곡>.

여항-시정 문화권은 작자의 실존적 특성보다는 작품 자체의 언표가 구현하는 미적 특성에 주목하여 향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의 서술자 탄식에 접근해야만 그 감상적 언표들의 실질적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에서의 삶의 탄식은, 규방가사 <과부가>에서의 탄식이 작자의 실존성과 결합하여 ‘주체로서 서기’, ‘공감 얻기’를 위해 복무했던 것과는 다르게, 작자의 실존성에 굳이 결합할 필요 없이 과부의 애처로운 삶을 드러냄으로써 불특정 계층인 ‘도시 대중의 통속적 미감을 자극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감상성의 소재라는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IV. 맺음말

<과부가>에는 출가한 지 보름 만에 청춘 흥안의 청상이 꺾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처절하게 형상화 되어 있다. 서술자는 정월 보름날의 玩月도, 이월 한식의 看山도, 삼월 삼짇날의 踏青도 함께할 이가 없다. 일 년 열두 달 어느 계절이고 간에 홀로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서술자는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서술자의 탄식이라는 담화 층위만 놓고 보면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는 규방가사의 한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감상성에 집중한 서술의 연계적 축적 후에 분출된 ‘암만히도 못참궂다’라는 사설은 이 텍스트가 도시 대중의 통속적 욕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통속적 욕망에 기반을 두고 산출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과부가>

『시행증보 해동잡가』 <스미인곡>, 『남녀병창 유행창가』 제2편 <사미인곡> 모두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 이 계열과 다른 계열로, 『남녀병창 유행창가』 제1편 <사미인가>, 『신구 유행창가』 <사미인가>가 더 있다.

의 서술자의 이별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死別이고, 가연을 맺은 지 겨우 보름 만에 이루어진 永別이었다. 靑孀의 애원과 별한과 고독이 주는 애틋한 아픔은 여항-시정 문화권 텍스트로서 매우 훌륭한 감상성, 자극성의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 글은 제목을 여항시정 가사의 담론 특성이라고 하였지만 주로 잡가집에 수록된 <과부가>를 중심으로만 고찰하였다. <규수상사곡>, <상사회답가>, <상사별곡>, <노처녀가>, <거사가>, <옥설화담> 등 이외에도 여항-시정 문화권에서 향유된 많은 가사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이들까지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검토해야 온전한 여항-시정 가사의 담론 특성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 여항-시정 가사 <과부가>의 특성을 규방가사와의 대비 속에 검토함으로써 여항-시정적 담론 특성을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 특성이 주로 기존 논의에서 밝혀진 여항-시정 문화권 텍스트의 특성을 <과부가>에서도 다시 확인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의 탐구가 있어야만 여항-시정 가사의 존재 양상이 총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과부가>(동국대 도서관) / <과부가>(고려대 도서관) / <과부가>(서울대 중앙도서관) / <귀천괴형 다전덕 슈작>, <과부가>, <청송가>, <이부가>, <소회>, <철철지 회심가>, <상사몽>, <여자 탄식>(이상 작품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 / <과부청산가>(『규방가사』 I 수록) / <상사금실>, <슈절자탄가>(이상 작품은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 <과부가>(『정정증보 신구잡가』) / <과부가>(『고금잡가 편』) / <과부가>(『무쌍 신구잡가』) / <寡婦歌>(『특별대중보 신구잡가』) / <과부가>(『시행증보 해동잡가』) / <과부가>(『신구 현행잡가』) / <과부가>(『신정증보 신구잡가』) / <寡婦歌>(신명균 편 『가사집』) / <寡婦歌>㉠(고대본 『악부』) / <寡婦歌>㉡(고대본 『악부』) / <寡婦歌>(『교주가곡집』) / <寡婦歌>(『歌集』1) / <과부가>(『규방가사』(신변탄식류)) / <과부가>(동국대 『석별가』) / <청춘과부곡>(『신찬고금잡가 부가사』) / <청춘과부전>(고대본 『악부』) / <청춘과부가>(『규방가사』(신변탄식류)) / <청춘과부가>(동국대 『석별가』) / <과부가>(영남대 도서관) / 『청구야담』 / <우부가>

2. 논문 및 단행본

- 강경호, 『서민가사의 실체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권순희, 『옥설화담의 소통 양상과 통속성』, 『어문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권태을, 『규방가사를 통해 본 사별인식고-숙명론에 선 과부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 김기형, 『구비설화에 나타난 과부의 형상과 의미』, 『한국민속학』26집, 한국민속학회, 1994, pp.28-43.
-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pp.10-24.
- _____, 『잡가의 생성기반과 장르 정체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pp.256-275.
- _____, 『서민가사의 담론기반과 미학적 특성』,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2004, pp.188-189.

- 박애경,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 백순철, 「연작가사 <만연사>의 이본 양상과 현실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제12집, 우리문학회, 1999, pp.188-189.
- 성무경, 「가사의 존재양식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pp.139-140.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25, 국제어문학회, 2002, pp.101-102.
- 육민수, 『조선 후기 가사문학의 담론 양상』, 보고사, 2009, pp.188-192.
- 이노형, 『한국 전통 대중가요의 연구』, 울산대 출판부, 1994.
- 전미경, 「개화기 과부개가 담론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19권 3호, 한국가정관리학회, 2001, p.18.
- 정지영, 「조선후기 과부의 수절과 재혼」, 『고문서연구』18권 제1호, 한국고문서학회, 2000, p.19.
- 최상은, 「규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 『새국어교육』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p.363.

Abstract

The Discursive Characteristics of Yuhang-Sijeong[civic
marketplace] Gasa
- Focusing on Widow songs[寡婦歌] included in
Japga-jip(雜歌集) -

Yook, Min-Su

In this paper, I figured out the discursive characteristics of Gasa works -especially <Guabu-ga> based on Yuhang - Sijung cultural area. The reason that studied the <Guabu-ga> is, it could clearly stand out the emotion of bereavement which is an universal emotion of the discourse about widow. This also could possible to stand out because the emotion was utilized in the mechanism of the stimulation and sentiment at Yuhang - Sijung cultural area. The number of Gasa works of <Guabu-ga> series(as a version) are 15 types in accordance with my investigation so far. 13 types of them are the works from a culture of boudoir, 2 types are from Yuhang - Sijung cultural area. There are only two types from Yuhang - Sijung cultural area but it was found that it had enjoyed actively in the cultural area. 2 types of Yuhang - Sijung Gasa are <Guabu-ga> and <Chyungchunguabu-gok>. There are 14 different editions of <Guabu-ga> and 5 different editions of <Chyungchunguabu-gok>.

In the course of the specific analysis, <Guabu-ga> kept characteristics of Yuhang - Sijung cultural area is the object and compared to <Guabu-ga> types of a culture of boudoir. The comparison is focused on whether being descriptions of the personal descriptor who has existing personality or not, differences of the aspect of phrases(on parts of marriage and supporting one's parents) and the utilizing common discourse among the areas of adjacent culture or identical culture. As a result, <Guabu-ga> types of a culture of

boudoir, combined with the existence of the author, were created and enjoyed in order to healing themselves, standing as a subject and gaining 'sympathy' by women from a boudoir who endured adversities. Compared to this, <Guabu-ga> from Yuhang - Sijung cultural area shows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concentrative depicting the part of sad sigh by the descriptor, using common discourses with <Gyusyusyangsa-gok> and <Sachin-ga> types, and sincere revealing emotions of human intrinsic because it was a work stimulating a popular esthetic sense to the random city public. There was no need to combine the existence of the author with <Guabu-ga> as a cultural goods included on the collections of Japga.

Key Word : Yuhang-Sijeong(civic marketplace) Gasa, Gasa from a culture of boudoir, Guabu-ga(Widow songs), sentiment, stimulation, standing as a subject, gaining sympathy

육민수

소속 :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주소 : (131-782) 서울시 중랑구 신내1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1동 311호

전화번호 : 02-901-8277 / 010-2309-5580

전자우편 : skku6mins@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
--